

근대지식인들의 민족해방운동

- 신채호와 여운형 -

한말 근대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서구식 근대학문을 수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에게는 '민족의 독립'과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두고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론과 추구한 지향점은 각기 달랐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바로 '역사 연구가 곧 민족독립운동'이라고 보았던 신채호와 '좌우를 아우르는 실천적 지도자'였던 여운형이다. 2026년은 단재 신채호의 순국 90주년이자 몽양 여운형의 탄생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들의 자취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단재 신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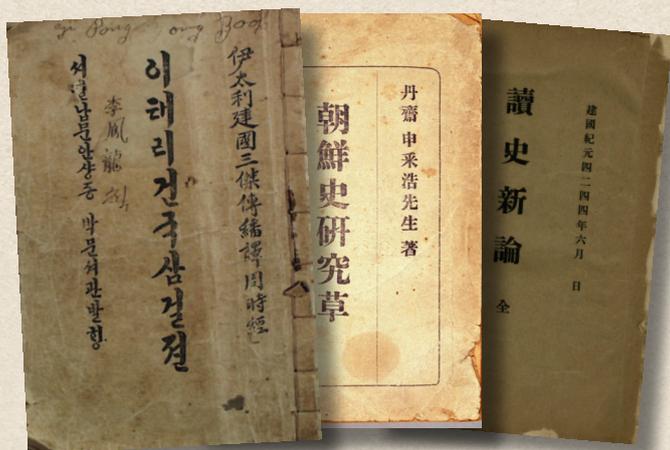
몽양 여운형

민족의식 고취에 힘쓴 사학자·언론인·독립운동가

- 신채호

단재 신채호(1880~1936)는 역사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신채호의 역사서술은 영웅전기를 저술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1907년 중국의 양계초가 집필한 「이태리건국삼걸전」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탈리아의 독립을 쟁취한 세 영웅인 마치니, 가리발디, 카부루의 전기를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삼걸인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 전기를 집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독립사상과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참 조선사'를 집필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독사신론」은 체재가 정비된 통사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근대민족주의역사학을 성립한 저술이자,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함으로써 반식민사학의 가치를 세운 저술로 높이 평가된다. 1920년대 이후에도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며 민족주의 역사학을 선도하였다.



신채호가 저술한 역사서

-이태리건국삼걸전 · 조선사연구초 · 독사신론-

신채호는 역사가뿐 아니라 언론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와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을 날카로운 필봉으로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서 민중 계몽과 항일 사상을 고취하는 논설을 통해 언론구국운동을 펼쳤다.

신채호의 독립운동론은 1923년 김원봉의 의뢰로 기초한 의열단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조선 민족 생존의 적이자 강도로 규정하고 그들을 혁명을 통해 '살벌(殺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3·1운동 이후 대두한 자치론, 내정독립론, 참정권론 등이 지닌 타협주의의 기만성과 매국성을 폭로하여 적으로 규정하고, 역시 일제와 타협 속에서도 가능한 문화운동도 적으로 규정하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조선혁명선언 (1923)

또한 외교론과 준비론도 잠꼬대나 꿈에 홀린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배척하였다. 그는 독립이란 선에서 한발짝만 후퇴하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가 되므로 오직 '독립뿐' 이외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절대독립론과 완전독립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채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몇 개소가 산재해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출생지는 1991년 7월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 1880년 11월 7일(음)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난 그는 이 곳에서 아버지 신광식이 세상을 떠나던 8세까지 기거하였다. 1992년 생가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채호의 8촌 형제와 마을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하여 1999년 생가를 복원하였다. 집 내부에는 신채호의 어린 시절을 재현해 꾸며놓았고 그가 지은 시가 함께 전시되어있다.

 사적지 상세보기



신채호 생가 전경

독립과 통일 의지로 일관한 신뢰의 지도자

- 여운형

몽양 여운형(1886~1947)은 국내와 국외를 넘나들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진보적 민족주의자이다. 이뿐 아니라 이른바 '조선의 코스모폴리탄'으로 좌우를 모두 아울렀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다. 여운형은 청년시절 국내에서 기독교계 활동을 통해 애국계몽운동과 청년운동에 참여하였다. 1914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난징의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던 중 1916년 학업을 중단하고 상하이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한 한편, 공산주의 그룹에 가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 정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한중호조사를 조직하고 쑨원의 권유로 중국국민당과 연대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29년 7월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후 1932년 7월에 출옥하였다.



상해활동 시기의 여운형
(1920, 오른쪽에서 세번째)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한 안창호와
함께한 여운형과 조만식
(1935, 맨 왼쪽)

출옥 이후에도 그는 국내를 무대로 항일운동을 지속하며 건국준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2월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인해 1937년 11월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사장직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1934년 조선체육회 이사 등 합법적 영역에서 각종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의 언론 기고를 통해 총독부 당국의 식민정책을 비판하였다. 국내외 정세에 밝았던 그는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에 대해 설파하다가 1942년 4월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1943년 7월 출옥 후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1943년 조선민족해방연맹, 1944년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면서 독립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준비하였다.

국내외에 산재한 그의 흔적 중에서도 그의 삶과 정신을 좀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양평에 자리한 그의 생가와 기념관이다. 여운형은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 묘골 함양 여씨 집안의 9대 종손으로 태어났다. 부친이 사망한 1908년까지 이 곳에 거주하였다. 생가는 당초에는 함양 여씨가 양평에 입향한 1715년(숙종 41년) 지어진 건물이다. 6.25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가 2001년 정비되고 이듬해에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것을 계기로 2011년 복원되었으며 생가 복원과 함께 기념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도 관리·운영되고 있다.

 사적지 상세보기



여운형 생가와 유허비 항공사진



몽양여운형기념관